공관복음서의 기적의 비밀을 읽고서

송은우

03/09/2013

공관복음서 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물위를 걸으신 기적과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등등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들어봤을것이다. 그러나 많은 기성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물론 기적같은 초자연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하면 건전하지 못한 신앙관을 갖을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그에 관해 잘못된 해석을 하지않고 건강한 신앙관을 가질수 있을것이다. J 칼라스 의 책 “공관복음서의 기적의 의미” 는 공관복음서 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

J 칼라스 는 예수님의 설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였는가 를 이야기 하는것으로 그의 책 “공관복음서 의 기적의 의미” 를 시작한다. 예수님의 기적들의 의미를 이해할수 있을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것에 대해여 잘 알 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세지는 과연 무엇이었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후 처음 전파하신 메세지가 바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4-15) 였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복음은 Good News 즉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을 외침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공관복음서들이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로써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설교의 초점이었다는 것도 동의하고 있다. 예수님은 또한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유의 목적은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적은 특성들을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중심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선포한 메세지 였고 또한 그의 최우의 예고 이기도 했으며 그의 제자들에게도 준 위임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였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예수님 때의 당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유대인 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여러가지 부수적인 의미들로 뒤범벅된 복합적인 개념이었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첫번째의 사상 혹은 이해를 책의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윗적인 희망” 이라고 명칭 한다.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번영의 황금기 였다. 다윗이 왕이였을때 유다 국가는 그 어느 나라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모든 국가를 다스리는 최강의 제국이라는 영광을 누렸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다윗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속 중에서 새로운 왕, 즉 다윗의 한 아들을 세울 것인데, 그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그가 다스릴 나라도 영원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초기의 해석은 그 나라가 지상적이고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유다 제국이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다윗의 제국에 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해버린것이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것은 결코 영적인 의미의 믿음의 나라애 대한 약속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상솽인 다윗의 지상적인 아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지극히 세상적이며 군사적인 나라였으며 결코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인 의미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는 부활이 있을수 없다. 다윗이나 그의 후손들은 어느 곳에서도, 다윗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면, 죽은 자들이 이 땅의 먼지로 부터 일어나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 다윗적인 희망은 모든 인류 역사의 종결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유대 역사의 절정에 대한 희망이 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야도 새로운 다윗 왕조의 조상으로써의 메시야 였으므로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야가 죽지 않을 것이라거나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

두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저자는 “다니엘적 희망” 이라고 명칭한다. 다니엘서 안에는 지상적인 왕,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정복자에 대한 기대가 없고, 대신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에 대한 언급만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 이 아니라 “같은” 이라는 표현을 썼으므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새로운 국가 원수는 단순히 사람을 닮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람의 아들은 인간이 아니며 초자연적인 존재로써 초월적인 하나님의 대리자 로 묘사된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대한 새로운 희망의 첫번째 특징은 이렇다. 그 나라의 임금은 죽음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천적인 존재이며, 그 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정치적이고 지역적이며 민족적인 나라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나라, 모두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그런 나라 인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나라, 모든 국가의 언어를 대변하는 부활한 자들이 백성이 되고 사람의 아들 같은 천적인 존재가 임금이 되는 그런 나라이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그 나라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수난과 재난의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적 희망과 다니엘적 희망 중에서 어느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기대했던 것이였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 하심으로 둘중 어느것을 뜻하신것일까?

책의 저자는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탄생의 대한 예고는 거의 전부가 예루살렘에 중심을 둔 민족적인 유다 국가에 대한 옛 다윗적인 희망의 범부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리스도 라는 칭호를 받아들이시기를 꺼려하셨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 라는 칭호는 예수님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그리스도 라는 칭호를 붙일려고 했다는것이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한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이 세상에 속한 지상적인 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유대의 군사적 강국을 가져오실 분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 계열의 지상적인 통치자로 생각하시지 않고 다니엘적인 천적 존재로 생각하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동등하게 그리고 그 이상의 것으로 제시하신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음으로써 그의 신성을 주장하신것이다. 단순히 도래할 지상적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세상의 왕 메시아로 오신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다니엘서 에서 발견되는 재난의 시기를 옹호하시고 또한 확장시키시는 것을 볼수 있다. 이 재난에 대한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의 새로운 성장을 가능케 했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며 기적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바탕이 된다. 이 재난의 사상과 세계관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라는 용어 와 공관복음서의 기적들을 좀 더 설명할수 있게 될것이다.

이러한 재난과 환란의 기간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려면 먼저 과거의 유대적 셰계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먼저, 유대인들이 갖고있던 유일신관은 하나의 유일한 천적 존재에 대한 신앙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지고의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것을 이해해야한다. 즉 강조점이 하나님의 유일성이 아니라 우월성에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유대인들이 멸망하거나 포로로 잡혀 가더라도 그것은 결코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약성, 혹은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았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그러나 구약성서 시대 말기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고난을 당했고 그런 고난의 기간동안 예언자들또한 단절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아직도 유대인들을 사랑하나 이 세상을 더 이상 다스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보여줄수 없어서 그들이 고난을 받는것이라고 결정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즉 사탄이 하나님으로 부터 세상을 훔쳤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아래 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적인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다. 즉 하나님께서 도둑맞은 그 왕국을 다시 한 번 다스리게 될때에 대한 희망 인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시 취하시기 위해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실때 이 세상에 엄청난 손상이 있게되는데 이 것이 바로 다니엘서 에 나오며 예수님또한 옹호하신 재난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즉 이 재난의 시기는 이 세상을 구속하는 사탄으로 부터 다시 찾아오고 재창조하며 원상 복귀시키는 과정 중 최후의 전투 시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난의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을 것이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은 아무런 통제력을 가지지 못한 채 잠깐 동안 이 세상을 떠나 바깥 저 암흑 속에 던져질 것이고 그런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올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이런 사상들과 예수님의 기적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겠다.